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 세계성찬주일에 입교와 세례를 받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입교자 : 이애리 / 세례자 : 이신재 박인하 최재원
- 사랑방공동체학교에서 주최하는 연합 선교바자회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주일(20일)은 기독교교육주일입니다.
- 꾸러기학교 가을 여행이 15일(화)-17일(목) 청주에서, 멋쟁이학교 테마여행이 14일(월)-17일(목)에 여러 곳으로 주제별로 있습니다.
- 이하늘(이정수 목사 최화선 사모의 아들)군과 계나리양의 결혼식이 19일(토) 11시에 아르테스웨딩 2층 아르테스홀에서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69.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조향민 · 최신혜 집사 가정 ( 이서 생일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꽂으로 : 권혁수 · 김미섭 집사 가정 ( 감사 )  
김원태 집사 · 박은희 장로 가정 (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종문구 앞

##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방교회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원로목사/ 정태일 담임목사/ 최성필

부 목사/ 이원영 권혁신 이동기 협동목사/ 박광희

장로/ 흥삼성 김영식 홍정길 인상호 은퇴장로/ 이용신

전도사/ 해은 권재만 정재훈 장영미 정다운 최기찬 이어진

선교사/ 조남희 김하진 노효중 김희정 윤연섭 이양숙 최장수 허윤정 임체정 손희정

제 36 - 41호  
2019년 10월 13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요즘 성서일기 진도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들에게 성전건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총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 보았던 스가랴서 3장은 네 번째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하늘의 회의 자리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소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실제 어떤 인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대표자로 보여 집니다. 고소하고 있는 사탄은 아담 때부터 그랬듯이, 원래부터 고발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소하였던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을 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하여 선택한 대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고소하는 자 앞에서 그를 두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시는데, 천사들을 통해 그가 지금 걸치고 있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여서, 그간 그가 입어버렸던 거룩한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키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할 것이다.”(슥3:7)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더러운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직분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증거로써 돌 하나를 두시는데, 거기에는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이 새겨져 있으며 일곱 개의 눈이 달려있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 줍니다. 돌에 새겨진 약속은 매 선교와 섬김

우 견고한 약속이어서 쉽게 바뀌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슥3:10) 하나님은 이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참소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또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싸구려 은혜로 바꾸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잘 알아라. 너희는 나의 일을 증거 할 사람들이다. 너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너희 삶의 모습 모두가 바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앞에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곤핍하지 않으며, 인색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서로 초대하고 환대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이며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이고 어떤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우 인격적이며 일상적인 모습으로 구현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야 하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

## 한주간의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스가랴서 2장

제목 :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인도 : 최성필 목사

찬송 : 413 412 93 95

#### 1. 내용관찰(What)

스가랴는 잇도의 손자이며 베레야의 아들로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이다. 스가랴는 B.C.520년 학개 예언자와 함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재건 공사를 독려했던 예언자이다.

<2장의 구조> 1-5(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 6-9(바빌로니아 있는 포로민들로 하여금 바빌로니아를 떠나라는 말씀), 10-13(회복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스가랴서 전반부(1-8장)에 나오는 8개의 환상들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이다.

#### 2. 내용의 의미(Why)

전체 메시지) 주님은 선민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 선민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제는 주님이시다.

본문의 주제는 좁게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말씀이며, 더 넓게는 선민들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문장의 주어가 ‘주님’으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많은데(5.6.9.10.11.12.1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체가 주님이라는 의미이다.

#### 3. 의미의 적용(How)

전체적용) 주님 안에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자.

-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안에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열정이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따라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 이어야 한다.

시간의 오병이어, 선교 바자회

( 2019. 10. 11 일기 )

해가 뉘엿 뉘엿 질 때 목이 칼칼해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맡겨진 글이 신발 속의 작은 돌멩이처럼 까끌거렸지만 아이들과 대충 저녁을 먹고 잠을 청했다. 오늘의 일정으로는 끓어떨어져야 맞는데.. 일어나 앉았다.

나에게 있어 선교 바자회의 의미를 다시 짚어 본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가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사용할 때는 보통 어떤 일로 인하여 종일 시달림을 받고 난 후였던 것 같다. 하지만 생각의 전환이 빠릿빠릿 ~

오늘 하루도 또 살았다. 별일이 없으면 내일도 또 살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님의 말씀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시간은 내가 아는 그 시간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한 두달 전부터 기획한 학교와 긴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 낸 루디아 공방의 수공품들과 장 봐서 범새 썰고 튀긴 부모님들의 수고와 꼬물 거리는 손으로 동전을 써댄 아이들의 시간은 그냥 하루가 아니지 않은가...!!

사랑방공동체의 오늘 하루가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로, 또 가까운 곳의 누군가에게 밥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학교가 되거나 아무튼 무언가가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는 순간, 주님은 물고기 두 토막과 빵 다섯 개로 보이신 그 기적을 오늘 하루를 내어놓은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 주님께서 바자회의 수익금이 쓰여진 그곳에서 그 기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할 것이다. 사랑방의 모든 이들의 작은 하루의 수고를 받은 누군가가 또 수고의 손이 되어 일할 것이다. 주님을 사랑을 보게 되었음으로..

아 편하다. 몸은 곤하나 오병이어의 말씀을 새롭게 다듬어 주신 주님.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95 : 1-5	인도자
29	다함께
	인도자
영광 영광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서 1 : 9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304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고린도전서 9 : 24-27	설교자
성가대 찬양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루터기사랑방	
설교	“절제, 성령의 열매”	최성필목사

###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웅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2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돋는 이들      안내 : 김일구 정성미 / 봉헌위원 : 김미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인도자 : 최성필목사  
 설교자 : 최성필목사

### 공동기도문

예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을 허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채우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절제, 성령의 열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신양인들을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 비유하고 있는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신양인들은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 경기장에서 달음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24>. 그런데 바울은 달음질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25>. ‘절제’의 원어적인 의미는 ‘~안에’라는 말과 ‘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다스리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무언가를 다스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 절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절제의 영이시며<딤후1:7>.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과 동행해야 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신양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권면합니다<25>. 음식을 먹는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며, 언어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하며, 마음과 생각을 사용하는 일 등등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25>. 절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제한하는 절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최성필 목사 / 기도: 강충자 친사

## 꾸러기학교

바람은 시원하고 햇살은 눈부신 하루하루가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꾸러기 학교는 도보여행과 지리산종주는 없지만 10월 한 달...학교 근처에서는 국립 수목원, 고모리 저수지, 무지랭이 산을 열심히 걸으면서 멀리는 가을여행 청주, 출업여행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가을을 온 몸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이번주는 국립수목원과 고모리 저수지를 다녀왔습니다. 비 온뒤라 그런지 수목원은 청량감이 가득했어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음악 삼아 들고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온 나무 냄새, 풀 냄새를 기분 좋게 마시며 산책을 했어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자연이 꾸러기들에게는 귀한 관찰거리이자 장난감이었습니다. 체력 좋은 꾸러기들은 밥을 먹자마자 아름드리 큰 나무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탐포 놀이를 하며 쉬지 않고 놀았어요. 또 떨어진 도토리와 나뭇잎, 돌멩이를 주워 다람쥐 집, 놀이터를 만들며 즐거워했어요.

이 날 꾸러기들의 만보기가 있었다면 2만보는 나왔을 것 같네요.^^

다음주는 청주로 가을여행을 갑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박현주 >

## 어린이학교

이번주부터 월요일 점심시간마다 음악을 들으며 침묵속에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오랜만에 침묵속에 식사라 안정된 분위기에 귀도 즐겁고 입도 즐거워 참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 월욜엔 어떤 음악이 흐를지 기대해 봅니다.^^

목요일엔 1~2 교시에 고구마를 캐습니다. 호미질을 할 때마다 고구마에 상처를 입힐까 조심조심 캐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이번 고구마는 나송주 집 사님께서 강화에서 직접 공수(?) 해 오신 모종으로 기른 호박 고구마라 더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맛나게 드세요~

금요일엔 어린이학교 주관으로 선교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맘나 간식을 사다 주는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모여 잡화에 꼬마 소년들이 배움과 가르침

글바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성거리는 모습, 예쁜 머리를 만들어주는 멋쟁이 언니 오빠들의 모습, 자기 물건 사가라고 들고 다니며 홍보하며 필러 다닌 벼룩시장, 삼삼오오 모여 예쁜 모습을 담고자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마니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이를 시켜서 간식 배달하는 멋진 모습. 뒤에서 묵묵히 뒷정리하시는 부모님들, 학교 마당에선 무슨 놀이를 하는지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물어나는 모습에 오늘 하루도 감동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겨서 모은 선교 현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쁘게 쓰이길 소망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 멋쟁이학교

달력 페이지가 떨어지는 것보다 기온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멋쟁이들은 하루에도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장단을 맞추곤 합니다. 계절에 맞추어 이번 주간에는 고구마를 한껏 캐냈습니다. 무심코 내려친 호미에 고구마가 상처입기 일쑤였지만, 나름대로 흙더미와 씨름하며 열심이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한 편에서는 선교바자회 준비로 바빴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한가득 기증하신 물건들을 나르고, 분류하고, 정리하였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선교바자회가 열렸던 금요일에는 각 팀별로 구역을 맡아서 바자회의 여러 역할들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사진관 코너, 옷 팔이, 즉석 헤어샵, 놀이마당 등등에서 자신들의 끼를 유감없이 표현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강한 햇볕아래에서 피곤할법도 하지만, 찾아온 다른 사람들과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지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지 이번 바자회도 참 즐겁게 웃으며 치뤄졌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주 목요일에는 학기 첫 공동심화학습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신안에 잠재된 재능을 찾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멋쟁이들 모두가 함께 나누며 길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깨닫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월요일부터는 모두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테마여행을 떠납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이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멋쟁이들이 서로간에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너희가 있었기에

어느 뮤지컬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우리 삶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들을 가져다준다고 … 이제 난 알겠어. 네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단걸. … 나의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너에게서부터 배운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걸.' 제 삶을 보면 저도 만났던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고, 그 배울 점들로 인해 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멋쟁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친밀하고 가깝게 학생들과 삶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을 많이 가져다줍니다. 중국에서 저희의 식사시간은 늘 1시간이 기본입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정서를 푸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피드백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식사가 마친 후 그동안 멋쟁이학교에서 학년끼리 있었던 일들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학년 안에서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과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학생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고, 상처를 입힌 학생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의 마음 상태와 친구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삶의 상황들에 대해 솔직히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 당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학생은 너의 상황들을 몰랐다고 하면서, 오히려 몰라서 미안하다 하고 그 사과를 받고 용서해주며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들도 너의 이런 이야기들은 처음 듣는다며,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그 당시 행동만 보고 너를 판단했음에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국 멋쟁이가 1년 동안 지키며 살아갈 약속을 정하는데, 그 약속 중 한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자.'라는 약속을 학생들이 정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코이노니아가 문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지는 것을 보았고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열쇠 중 하나는 '용서와 화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훌륭한 학생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멋쟁이학생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오늘도 어떤 배울 점을 가져다줄지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배울 점이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코이노니아의 삶을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디아코니아 사랑방 김혜연 선생

함께사는 이야기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쓰 : 시편 3편

인 도 : 정재훈 전도사

기 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태풍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

올해 연이은 태풍 발생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재산, 인명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북태평양에 새로운 태풍이 또 발생했는데 계속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양국의 농부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늘문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생명생전인치유사역 연구원 발전을 위해
2. 영치유, 혼치유, 육치유, 자연치유, 먹거리치유를 위한 힐링타운이 세워질 수 있도록
3.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선도 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지체들을 위한 기도>

사랑방공동체 학교에서 주관하는 연합선교바자회 행사를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 〈생활공동체 소식〉

지난 주는 여려 일정으로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사랑방 공동체에서 경기도 대안학교 연맹 소속의 학교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원근각처에서 15개 학교의 교장단들이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요즘 대안학교의 입지가 우리사회 안에서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사랑방 공동체학교는 대안학교 진영에서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섬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금요일에는 사랑방공동체 연합 선교바자회가 있었습니다. 무림 사랑방을 비롯하여 마을 분들과 이웃 교회식구들이 함께 찾아주셨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먹을거리와 입을거리 판매, 활기찬 경매 시간 등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으로 마음도 기쁘고, 손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를 위한 여러 섬김의 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멋쟁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몸으로 섬기느라 애써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전도사 >